

##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영향 점검

### [요 약]

- 12월 14일 美 기준금리(정책금리) 0.25%p 인상.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를 통해 내년 금리수준을 1.25%~1.5%로 제시하여 1년 간 3차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 트럼프 정부의 재정정책 등 물가상승 압박 요인 발생 시 금리 인상 속도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 존재
- 한국은행은 12월 15일 기준금리 1.25% 동결, 향후 트럼프노믹스를 비롯한 대외 불확실성 추이를 모니터링 하며 당분간 관망 기조 유지 전망
- 정부 대응책으로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채권시장안정펀드 검토, 금융회사 건전성 점검 등을 통한 대응여력 확대 제시
- 한국·미국 장기금리 역전현상이 지속되며 금리 추가 인상 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가속화 가능성 상존
- 취약계층 제2금융권 대출 급증에 따른 경기 침체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 마련 시급
- 미국 정책금리 인상 추이에 연동하여 공사 모기지론 수요가 변화할 가능성에 대비

- 
- 작성자: 송완영 연구위원 (051-663-8157 / 7608@hf.go.kr)
  - 본고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 1 미국 기준금리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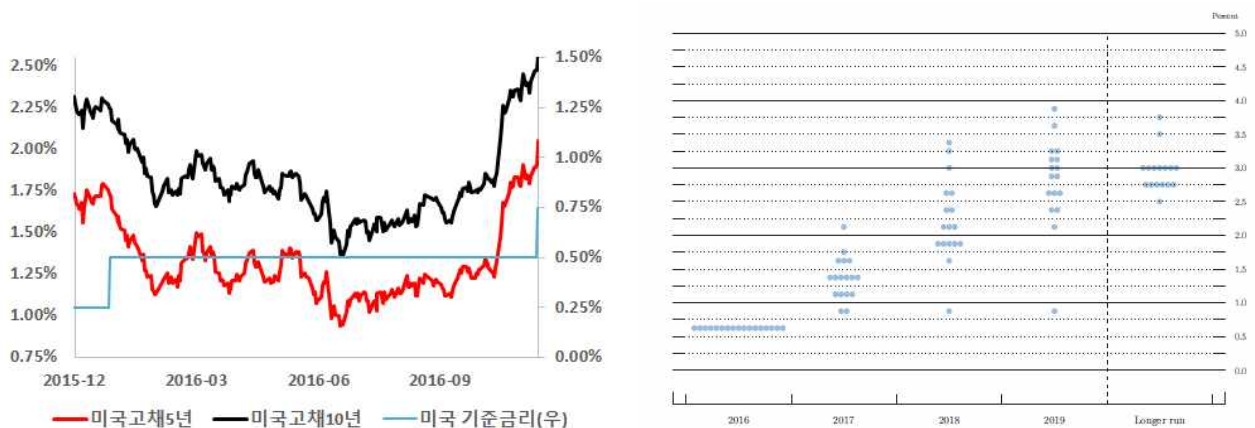
### □ 美 기준금리(정책금리) 0.25%p 인상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이하 연준)는 12월 14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0% ~ 0.75% 올리는 금리 인상 조치 단행
- 위원 17명 만장일치로 1년 만에 0.25%p 인상
- 옐런(Janet Yellen) 의장은 고용 극대화과 물가 안정이란 두 가지 목표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강조하며 금리 인상 배경 설명

### □ 향후 1년간 3차례 추가 금리 인상 시사

- FOMC 참석 연준위원 17명의 적정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Dot Plot)」를 통해 6명의 위원이 내년 금리수준을 1.25% ~ 1.5%로 제시하여 1년 간 3차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 점도표 상향 조정은 경제 호조에 대한 자신감과 더불어 트럼프 정부의 재정정책·보호무역주의 등 물가상승 요인 발생 시 보다 강력한 긴축 통화정책을 펼칠 수도 있다는 선언적 의미로 해석<sup>1)</sup>

[그림 1] 미국 정책금리와 주요금리(좌) 및 점도표(우)



※ 자료 : 연합뉴스포맥스, Fed

1) 지난해 12월 금리인상 시에도 점도표는 2016년 최대 4번의 금리인상을 시사했었음

## □ 금리인상 시사 배경 : 트럼프노믹스<sup>2)</sup> 견제

- 엘런 의장 및 연준 위원들은 이번 금리인상을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sup>3)</sup>의 표시로 평가
- 또한 고용시장 여건이 호전되고 실업률도 감소하는 등 미국 경제가 진전을 보이고 있어 완전고용 촉진을 위한 재정정책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을 강조하여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
- 이에 만약 트럼프 정부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본격화하는 등 트럼프플레이션<sup>4)</sup> 우려가 확산된다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 존재

## 2 한국 기준금리 동결

### □ 12월 15일 기준금리 1.25% 동결

- 한국은행은 15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1.25%로 동결함. 지난 6월 기준금리 0.25%p 인하 이후 6개월 연속 동결

### □ 금리인하론 제동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회복을 위한 추가 금리인하 요구에 대해 경기 하방리스크<sup>5)</sup>가 있기는 하나 이를 기준금리 인하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 표명. 금리정책은 성장과 물가만 보고 하지 않으며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금융안정 리스크도 고려해야 함을 강조

2)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세운 감세, 재정지출 확대 및 대규모 인프라 투자, 규제철폐 등의 경제정책. Trump와 Economics의 합성어

3) CNN은 '금리 인상은 미국 경제가 더 이상 연준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며 소비자와 기업이 대출이자를 더 부담할 여유가 생겼음을 시사'한다고 평가

4) 트럼프 재정책대 정책이 유발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지칭

5) 기존의 성장전망보다 둔화되는 위험

- 또한 미국 금리인상 이후 자본유출 우려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가계부채는 문제로 지적. 금리상승은 저소득·저신용 다중채무자 이자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을 경고. 향후 트럼프노믹스를 비롯한 대외 불확실성 추이를 모니터링 하며 당분간 관망 기조 유지 전망

### 3 미국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영향

#### □ 정부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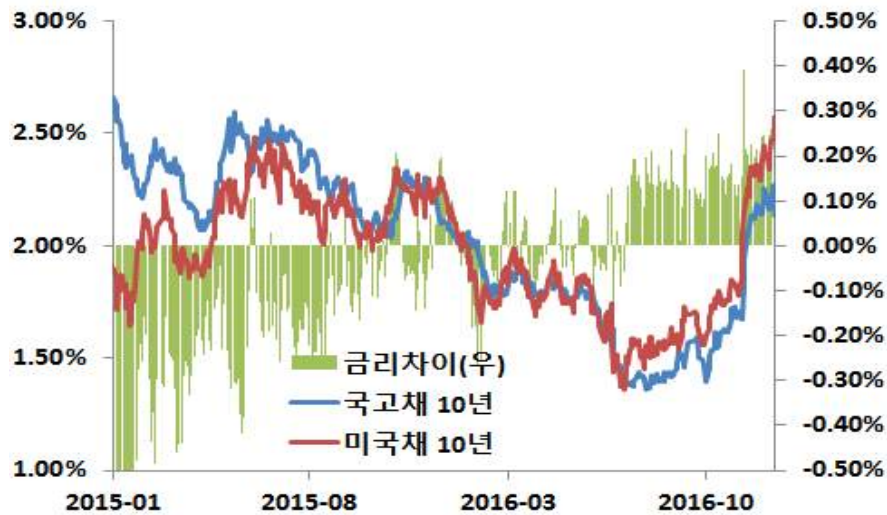
- 12월 15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정부는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빠른 통화정책 정상화를 의미한다고 분석
-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이슈로 국내 정치 혼란, 트럼프 정부 출범(내년 1월), 영국 브렉시트 협상(내년 3월) 시작 등을 주요 변수로 제시
- 글로벌 금리 상승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및 정책서민자금 공급 ②채권시장안정펀드<sup>6)</sup> 재가동 검토 ③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및 선제적 자본확충 등을 통한 대응여력 확대를 제시함

#### □ 외국인 자금 이탈

- 한국은행은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 시 외국자본 유출 우려에 대해 현 단계에서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 ①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민간부문 외화유동성 풍부 ②충분한 외환보유액 ③양호한 대외건전성 등을 근거로 제시
- 반면, 2015년 하반기부터 한국과 미국의 10년 이상 장기금리 역전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미국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역전현상 지속. 미국 금리 급등 시 전 구간에서 금리 역전 발생 가능성이 높고 이에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가속화 가능성 상존

6) 채권시장 경색으로 인한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의 유동성 지원과 국고채·회사채 스프레드 차이 과도화를 해소하기 위한 펀드. 2008년 12월 첫 설정 5조원으로 시작. 정부는 현재 90개 금융회사와 채권시장안정펀드 운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10조원 이상 조성 방침.

[그림 2] 한국과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 추이



※ 자료 : 연합인포맥스

## □ 가계부채 안정성 우려

- 지난 9월 발표한 한국은행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1,295조원, 최근까지의 은행권 가계대출 고려 시 1,300조원 이상으로 추측됨
- 고령층·영세 자영업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금리 상승 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 과다로 부실 가능성이 높아지며, 국내 경기침체 장기화로 한계가구<sup>7)</sup>의 사업자금·생계용 자금대출 증가폭도 꾸준히 커지고 있음[그림3]
- 금리 상승 시 취약계층의 제2금융권 대출이 급증해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 마련 시급

## □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수요 전망

- 가계부채 가운데 60% 이상이 변동금리형으로 추정되며 700조원 이상이 금리 변동에 노출되어 있음. 고정금리형도 3년에서 5년 후 변동금리형으로 전환되는 비중이 높아 같은 위험에 노출

7) 순금융자산이 마이너스인 동시에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이 40%를 초과하는 가구.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이 높은 상태에서 채무상환 요구가 집중될 때 실물자산 처분 없이 단기간에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가구임.

[그림 3] 주택담보대출 자금용도별 비중



※ 자료 :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16.10

- 따라서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제공할 경우 공사 모기지론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내년 미국 정책 금리인상 추이에 연동하여 모기지론 수요가 변화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함